

자녀가 여성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

노 윤 재**

본 연구는 출산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이 가지는 모성 페널티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며, 이러한 모성 페널티의 이질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첫째 자녀의 출산으로 인해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큰 충격을 받는데, 여성의 고용과 임금이 출산 직후 하락하여 낮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반면 남성은 고용과 임금수준 모두 출산 전후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여성의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은 초산 나이가 젊은 여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출산 후에도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모성 페널티를 낮추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제고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1. 머리말

한국의 합계출산율(TFR)은 2022년에 0.78명으로 사상 최저를 경신했다.¹⁾ 이는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인 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여러 연구에서 한국의 저출산 추세 심화의 배경으로 변화하는 가족 구조, 극도로 경쟁적인 사회, 성 불평등 심화, 불안한 정치 상황, 높은 생활비용 등을 꼽고 있다(Anderson et al., 2013).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관심이 높는데, OECD 보고서에서는 일과 육아를 함께 하기 어려운 환경이 한국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저출산 문제에 큰 역할을 한다고 발표했다(OECD, 2022).

실제로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추세를 나이별로 살펴보면, 일과 육아의 병행이 어렵다

* 이 글은 최세림·신선호·노윤재(2022), "Work Together and Care Together?: An Evaluation of How Children Affect Parents' Labor Supply in Korea"의 일부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yjro@kiep.go.kr).

1)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온라인자료(검색일: 2023. 8. 8).

는 것을 가능해 볼 수 있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대 초반과 40대 후반에 정점을 이루는 이원적 구조를 보인다. 25~35세 구간의 경제활동 참여율 하락은 많은 여성이 출산, 육아, 가사노동 등으로 대표되는 비시장 노동(non-market labor)을 위해 시장 노동(market labor)을 포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여성들, 특히 유자녀 여성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이탈과 경력 단절을 ‘모성 페널티(motherhood penalty)’라고 표현할 수 있다. OECD 보고서에서는 성별, 자녀 유무에 따른 고용 격차가 한국이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단순 통계를 살펴봐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데,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15~54세 기혼 여성 총 810만 3,000명 중 미취업 여성은 302만 7,000명이고, 이 중 직장을 다니다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은 139만 7,000명으로 미취업 여성의 46.2%를 차지한다.²⁾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보이는 모성 페널티의 한국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모성 페널티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자녀 출산이 남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분석을 수행한다. 출산의 결정은 내생적이기 때문에, 선택에서 오는 편의를 줄이고자 첫째 자녀 출산을 전후로 부모의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는 이벤트 스터디(event study) 방법론을 사용하여, 출산의 영향을 동태적으로 분석한다. 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출산의 여성 노동 공급에의 영향의 이질성에 대해서 분석한다. 출산이 여성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잠재적 기회비용의 차이가 출산으로 인한 노동 공급의 변화의 차이를 불러올 것이다.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이탈로 인한 기회비용이 클수록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질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여성의 자녀 돌봄에 대한 기대, 현실 인식 등의 차이가 노동 공급에 이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초기의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를 설명하는 연구들은 성별 인적자본의 차이, 사회에서의 차별,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선호 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한다(Blau and Kahn, 2017). 그러나 적어도 선진국에서 여성과 남성의 교육 수준이 비슷해지고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최근의 연구들은 인적자본의 차이보다는 여성의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러 연구에서 다양한 국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통하여 나라마다 모성 페널티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Bertrand et al., 2010; Angelov et al., 2016; Kleven et al., 2019; Kuziemko et al., 2018). 본 연구는 이벤트 스터디 방법

2)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온라인자료(검색일 : 2023. 8. 21).

론을 사용해 출산이 부모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Angelov et al.(2016), Kleven et al.(2019), Kuziemko et al.(2018)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앞에 제시된 세 연구는 미국, 덴마크, 영국에서 첫째 자녀의 출산이 여성과 남성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대조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출산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임금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임금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분석하고 나아가 여성의 출산 시점, 교육 수준, 자라온 가정 환경에 따른 모성 페널티의 이질성에 대해 분석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분석 방법과 자료를 소개한다. 제Ⅲ장에서는 주요 결과를 보여주고 결과의 이질성에 대해 논의한다. 제Ⅳ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분석 방법 및 자료

1. 데이터 및 분석 표본

첫째 자녀의 출산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첫 아이의 출산 전후로 관찰된 개인의 노동시장 결과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여성 가족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 KLoWF)의 1~8차(2006~2020) 자료를 사용한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2년마다 실시되는 여성에 대한 종단 조사로, 2006년에 19세에서 64세 사이의 9,997명의 여성을 인터뷰하기 시작했고, 여성의 삶과 일의 광범위한 범위를 포함하는 조사이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여성의 출산, 교육, 직업, 임금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에 본 분석에 적합하다.

이벤트 스터디 방법론은 첫 번째 아이의 출생을 사건(event)으로 놓고 사건 전후 결과 변수(outcome variable)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분석 표본은 설정된 분석 기간에 아이를 출산한 여성이며 사건 전후로 관찰된 여성으로 제한한다. 본 분석에서는 사건 전후로 표본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룰 것을 요구하지 않고 첫 번째 아이의 출생 사건 전후에 적어도 한 번 이상 답변한 여성만을 포함한다. 또한, 세대별 차이의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각 표본의 분석 대상 기간을 출산 전 5년과 그 후 10년으로 제한하였다.

〈표 1〉은 분석에 포함된 표본의 개인 특성을 보여주는 요약 통계이다. 앞서 언급한 표본 제한으로 총 671명의 여성이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분석 기간에 여성은 평균적으로 5.8번 관찰되

는데 출산 전 2.1번, 출산 후 3.7번 관찰된다. 여성의 첫째 자녀 출산 전후의 자료가 한 번 이상 관찰된다는 것은, 표본 구성 변화로 인한 영향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표본에 포함된 여성은 평균 33세이고, 그들의 첫째 자녀 출산 당시의 나이는 약 30세이다. 표본의 85%를 차지하는 여성이 현재 결혼상태이며, 43%의 여성이 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남성의 정보는 패널 조사에서 기혼 여성이 자기 남편의 노동시장 관련 변수에 대해 응답한 것을 기초로 한다. 표본에 포함된 남성은 평균적으로 여성보다 나이가 많고, 교육 수준도 높다.

〈표 1〉 요약 통계

변수	여성			남성		
	평균	표준편차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표본 수
나이	33.05	5.17	3,546	36.46	5.10	2,997
대학 졸업자	0.43	0.49	3,546	0.74	0.43	2,997
교육 연수	14.48	1.89	3,546	14.76	2.14	2,997
혼인상태	0.85	0.36	3,546	-	-	-
초산 나이	30.79	3.9	3,546	-	-	-
취업 여부	0.44	0.5	3,546	0.92	0.27	2,997
월 소득	195.9	99.4	1,511	320	152.41	2,681
주당 근로시간	41.38	13.3	1,568	47.70	11.2	2,685

2. 분석 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자녀의 출산이 부모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출산의 영향을 추정할 연구는 출산 결정의 내생성에서 오는 편의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 연구자들은 쌍둥이 출산, 형제의 성별 구성, 첫째 아이의 성별과 같은 출산으로 인한 충격에 대한 도구 변수를 사용해 왔다. 출산이 부모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첫째 자녀의 출산 전후로 발생하는 변화 추세를 살펴볼 수 있는 이벤트 스터디 방법론을 채택한다.

본 방법론이 출산 선택의 내생성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지만,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이벤트는 출산 당사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급격한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는 충격이고, 이러한 변화는 해당 노동시장 결과의 관찰되지 않은 결정 요인들과 연관성이 적다. 더욱이 이벤트 스터디 방법론을 사용하면 이러한 추정된 계수를 동태적으로 추적할 수 있고 시각화하기에 쉽다. Kleven et al.(2019)과 Kuziemko et al.(2018)의 모형을 차용하여 첫째 자녀의 출생 연도를 “사건”

으로 정의한 아래의 모형을 사용한다. 모형에서 하첨자 i 는 개인을 나타내고 t 는 조사 연도를 나타낸다.

$$y_{it} = \sum_{\tau=-5, \neq -1}^{\tau=10} \beta_{\tau} 1[\tau=t-c^i] + \sum_a \gamma_a 1[a = Age_{it}] + \delta_t + \epsilon_{it}$$

본 분석에서 첫째 자녀의 출생을 “사건”으로 정의했기에, 첫째 자녀의 출생 대비 상대적 시간을 τ 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아이의 출생 시점을 $\tau=0$ 으로 설정하면, $\tau=1$ 은 아이의 출생 1년 후, $\tau=-1$ 은 아이의 출생 1년 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c^i 는 여성 i 가 첫째 자녀를 출산한 연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위 식에서 $1[\tau=t-c^i]$ 은 여성 i 가 t 년도에 첫째 자녀를 τ 년 전에 출산했거나, 미래에 $|\tau|$ 년 후에 출산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 변수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벤트 타임인 τ 는 -5부터 10까지로 설정한다. 모형 분석에서 첫 아이가 태어나기 1년 전을 나타내는 $\tau=-1$ 은 제외하여, 각 이벤트 타임의 추정 계수들은 첫째 아이 출산이 출산 1년 전과 비교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석에서 연도와 나이 더미 전체를 포함하여 $\tau=-1$ 을 0으로 정규화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해석한다. 결과 변수(outcome variable)로는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광범위한 변수들을 포함한다. 경제활동 참여 여부, 취업 여부, 임금, 노동 시간의 변화 등을 사용한다. 분석에 사용된 임금 정보는 여성의 경우 한 달 평균 급여이고 남성의 경우 기타소득을 포함하는 한 달 평균 소득이다. 이벤트 스터디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기에, 결과 변수에 대한 영향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줄 수 있다. 다음 장에서 결과를 소개할 때는 β_{τ} 계수의 시간별 추세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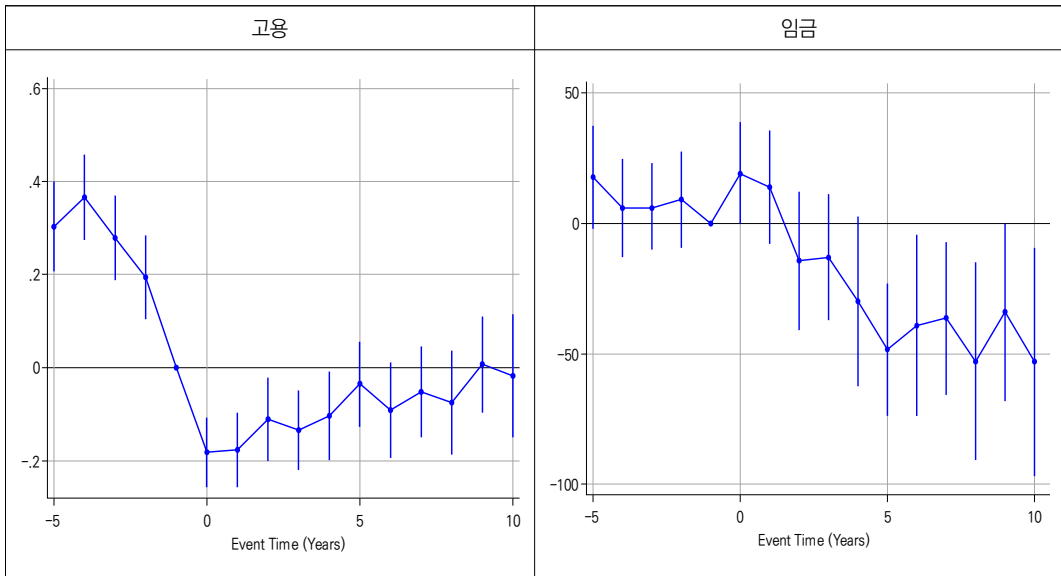
III.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두 가지 주요 연구 결과를 보여준다. 첫째 자녀의 출산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남성과 비교하여 보여준 후, 이러한 결과의 이질성에 대해 논의한다. [그림 1]과 [그림 2]는 첫째 자녀의 출산이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장에 각각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결과이며, 앞의 모형에서 이벤트 스터디 추정 계수들을 시간에 따라 나열한 것이다. 그림은 95%의 신뢰 구간을 포함하고 있다.

두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첫째 자녀의 출산은 여성의 고용과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남성은 첫째 자녀의 출산에 대체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에서 보이는 여성의 출산으로 인한 고용과 임금의 변화를 보면, 자녀 출산 이후 그 전과

비교해 여성의 고용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특히, 출산 연도부터 출산 직후 4년까지 원래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5년 차까지 고용이 서서히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6~8년 차에 다시 약간의 하락이 관찰된다. 출산 후 만 6~8년 차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저학년을 보내는 기간이다. 초등학생 돌봄 공백의 문제로 인해 유자녀 여성의 2차 경력 단절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임금의 경우, 출산 직후 임금수준이 하락한 이후, 계속해서 그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고용이 회복되지 못했음을 고려할 때 임금의 경로는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그림 1] 첫째 자녀 출산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자료 :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 1~8차(2006~2020)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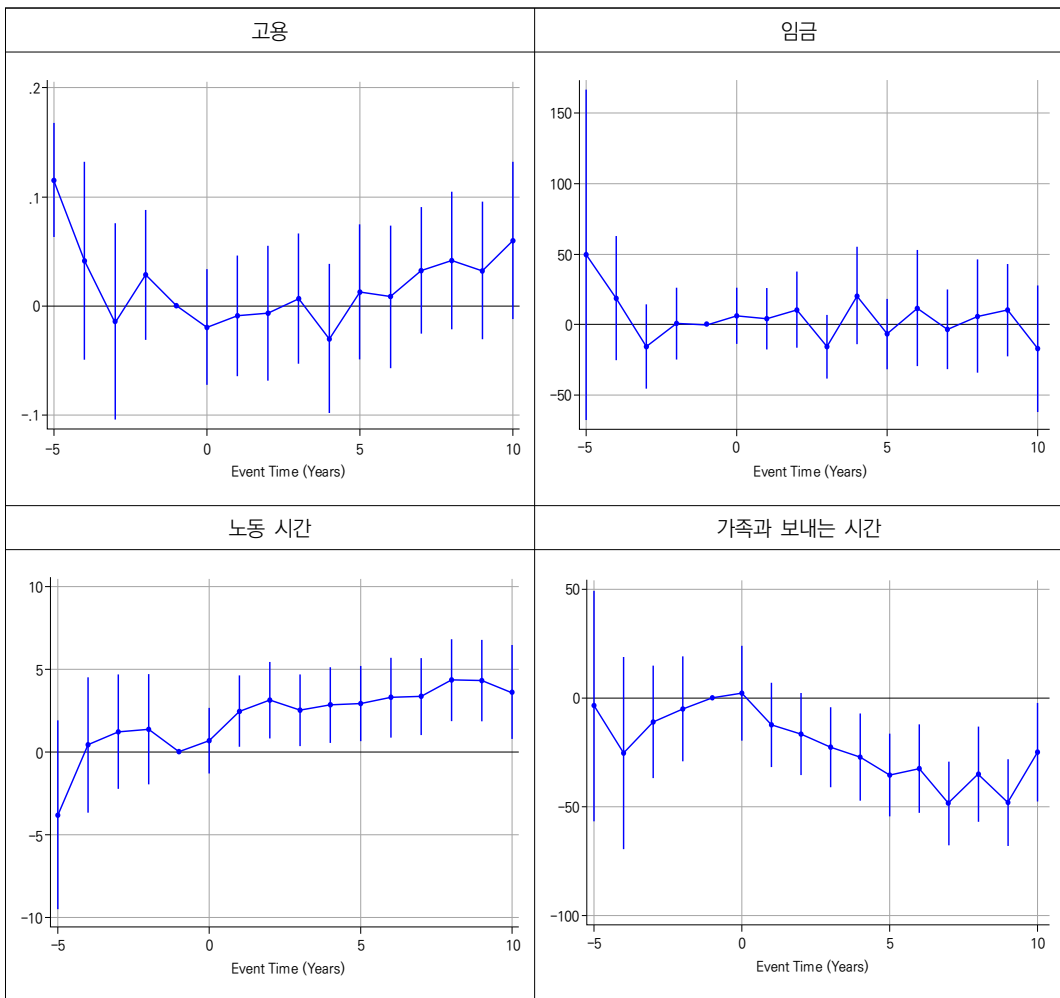
[그림 2]는 (아내의) 첫째 자녀의 출산이 남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아내의) 첫째 자녀 출산이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여성과는 다른 경로를 따르는데, 고용과 임금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흥미로운 점은 남성은 첫째 자녀 출산 후 근로 시간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로 시간 증가는 남성의 가족과 보내는 시간의 감소 추세와 맞아떨어진다. 첫째 자녀의 출산이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대조적인 것은 모성 페널티가 여전히 여성에게만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출산이 여성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의 역량, 배경, 선호도 등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어서 개인의 특성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나는 출산의 영향을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비용의 차이, 모성과 성 규범에 대한 인식 차이, 돌봄 부담에 대한 상이한 기대의 경로

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의 출산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의 노동시장에서의 기회의 질적 차이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미 견고한 경력을 가진 여성들은 노동시장을 이탈할 때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더 높은 기회비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기회비용의 차이가 출산 후 노동시장에서의 이탈과 복귀 선택의 차이를 불러올 것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출산의 기회비용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정확한 변수들을 쉽게 구할 수 없지만,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첫째 자녀 출산 연령과 교육 수준의 차이를 통해 이러한 의사결정의 잠재적 이질성에 관해 탐구한다.

[그림 2] 첫째 자녀 출산이 남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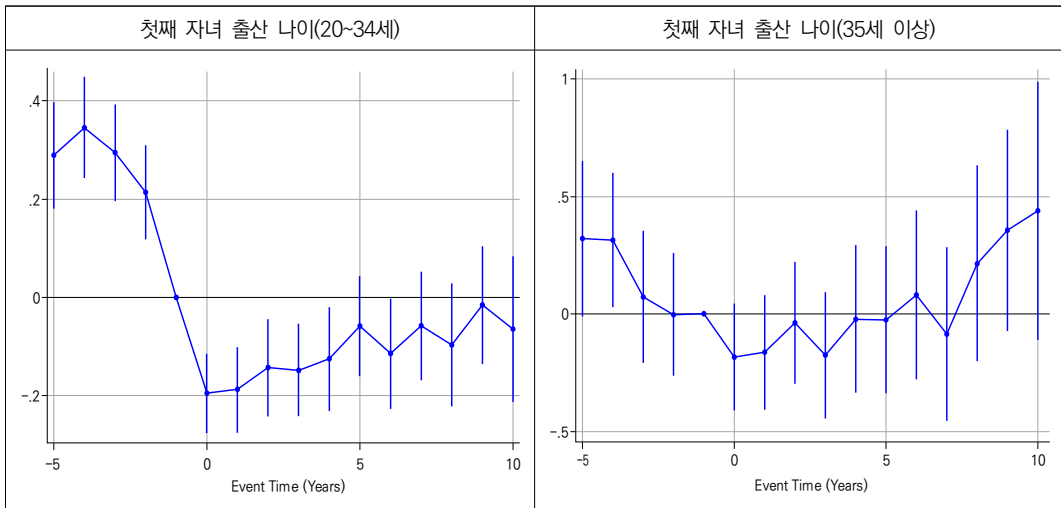
자료 :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 1~8차(2006~2020)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먼저 첫째 자녀 출산 당시 여성의 나이가 20~34세인 그룹과 35세 이상 그룹으로 나누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다. 그 결과는 [그림 3]에 나타나 있는데, 이 두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초산 나이별로 모성 페널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초산 나이가 낮은 그룹(20~34세)에 속하는 여성들은 초산 나이가 많은 그룹(35세 이상)에 속하는 여성들에 비해 고용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초산 나이가 많은 그룹에 속하는 여성들은 이미 노동시장에서 경력을 쌓았을 것이고, 이러한 여성들은 첫 자녀 출산 이후에도 경력을 유지하려는 내적 동기와 노동 공급을 줄였을 때의 비용이 크기 때문에 초산 나이가 적은 그룹의 여성에 비해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경향이 적을 것이다. 반면, 초산 나이가 적은 여성들은 직업 경로의 초기 단계에 있어 노동시장 이탈로 인한 기회비용이 낮으므로,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이탈이 쉬울 것이다.

대학 교육을 이수한 여성과 이수하지 못한 여성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교육 수준의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교육 수준에 따른 여성의 출산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두 그룹에서 모두 출산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관찰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향이 줄어드는데,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에게서 모성 페널티가 조금 더 길게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 그룹 간의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노동시장 기회비용의 차이로 인한 이질적 결과를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여성의 모성과 성 규범 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자 한다. 여성의 출산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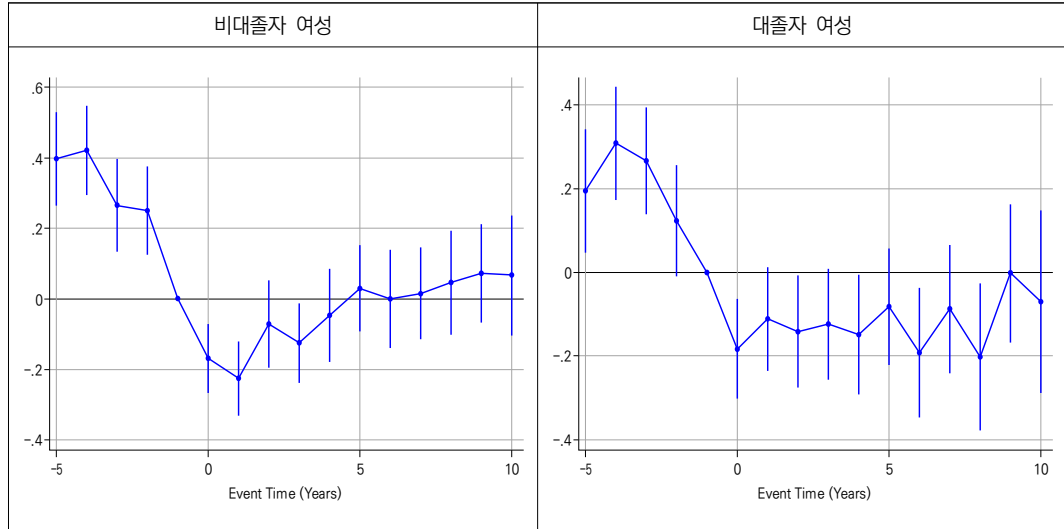
[그림 3] 첫째 자녀 출산이 여성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출산 나이



자료: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 1~8차(2006~2020)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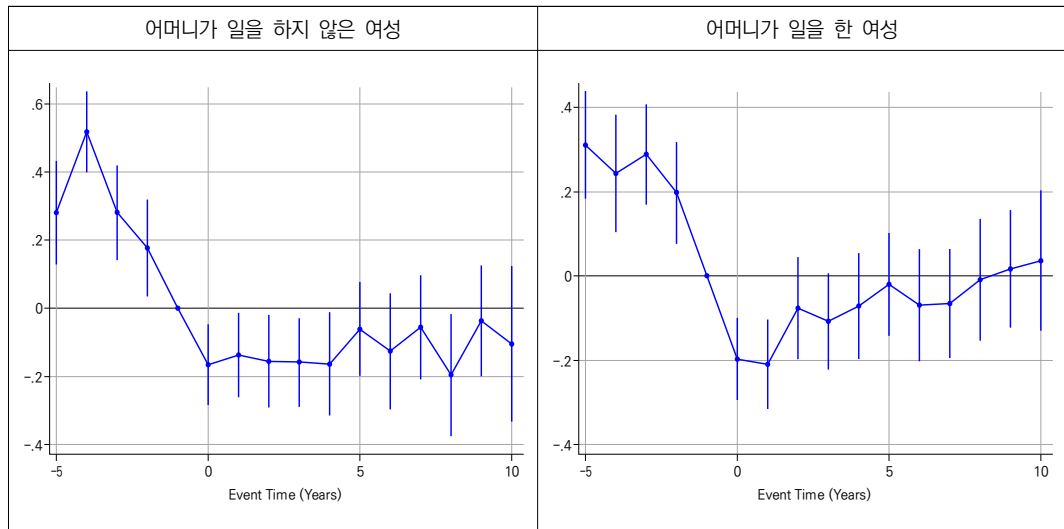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저해하는 이유 중 하나는 죄책감이다. 이러한 육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변수가 없기에, 본 분석에서는 여성의 어머니가 일을 하는 워킹맘이었던지 여부를 사용하여 분석을 시행한다. 본 분석은 여성의 어머니가 일을 하는 워킹맘이었다면, 이 여성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덜할 것이라는 가정을 동반

[그림 4] 첫째 자녀 출산이 여성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교육 수준



자료: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 1~8차(2006~2020)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5] 첫째 자녀 출산이 여성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워킹맘 여부



자료: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 1~8차(2006~2020)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한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일을 했다는 것은 여성의 일과 육아의 병행에 대한 간접 체험을 했다는 것이니, 여성의 모성 책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성은 여성의 육아에 대한 부재에 있어서 죄책감이 적을 수 있다.

[그림 5]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일을 했던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의 노동 공급의 차이를 보여준다. 두 그룹 모두 첫째 자녀 출산 이후 고용이 감소하는 모습이 공통으로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복하는 양상은 다르다. 어머니가 일을 했던 여성들은 노동시장을 잠시 이탈하지만 이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어머니가 일을 하지 않았던 여성들은 출산의 충격에서 오랜 시간 벗어나지 못하고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데 오래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IV. 맺음말

이 글에서는 출산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이 가지는 모성 페널티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며, 이러한 모성 페널티의 이질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여성의 출산 결정에 대한 내생성을 제거하기 위해 첫 자녀 출산을 하나의 외생적 사건으로 하는 이벤트 스터디 모델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첫째 자녀의 출산으로 인해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큰 충격을 받는다. 여성의 고용이 출산 전과 비교하면 감소하는데, 자녀가 만 5세가 될 때까지는 서서히 회복하는 추세가 관찰되지만, 이전의 수준으로 완전히 회귀하지는 못한다. 임금도 출산 직후 하락하여 낮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둘째, 남성은 고용과 임금수준 모두 출산 전후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심지어, 남성은 첫째 자녀의 출산 이후 노동 시간을 늘리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여성의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은 초산 나이가 젊은 여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워킹맘인 어머니를 둔 여성이 자녀 출산 후에도 노동시장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복귀한다.

2005년 이후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남성보다 계속해서 높은 상태를 유지해 왔기에 지금의 가입기 여성은 남성보다 대졸자 비중이 높은 집단으로 변모했다. 최근 초산 나이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인적자본에 높은 수준의 투자를 한 최근 코호트의 여성들이 저연령/저경력일 때 더 큰 모성 페널티를 인지하여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초산 연령을 지연하는 선택을 하여 나타나는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자녀의 출산은 필연적으로 여성에게 일시적인 고용 충격을 초래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듯, 한국의 경우 여성들은 자녀 출산 후 고용 충격에서 점진적으로

회복하더라도 본래의 수준으로 돌아가지는 못한다. 만약 출산이 단기적인 고용 충격뿐만 아니라 중장기(6~8년 차)적인 고용 충격으로 이어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출산 이후 일시적으로 소실된 인적자본을 회복하기 위한 투자는 어려워지고 이는 인적자본의 영구적인 소실(경력 경로 완전히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자녀 출산이 여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의 특이점은 자녀 출산으로 인한 고용 충격이 점진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체감하는 모성 페널티 수준을 크게 높이는 요인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출산 후에도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모성 페널티를 낮추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최근의 저출산 정책 방향을 뒷받침한다. 단기적으로 출산 직후 여성의 고용 충격에 대한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초등 입학 자녀에 대한 돌봄 문제가 해결된다면, 여성들은 자녀 출산 후 점진적으로 인적자본을 회복하고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것이 조기에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출산하지 않은 여성도 자녀 출산으로 인한 장기적인 인적자본 손실의 경로를 기대할 가능성이 작아지게 되어 출산 선택이 지금보다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KLI**

[참고문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온라인자료(검색일 : 2023. 8. 8).

_____, 「지역별고용조사」, 온라인자료(검색일 : 2023. 8. 21).

Anderson, Thomas and Hans-Peter Kohler(2013), “Education Fever and the East Asian Fertility Puzzle: A case study of low fertility in South Korea,” *Asian Population Studies* 9(2), pp.196~215.

Angelov, Nikolay, Per Johansson, and Erica Lindahl(2016), “Parenthood and the Gender Gap in Pay,” *Journal of Labor Economics* 34(3), pp.545~579.

Bertrand, Marianne, Claudia Goldin, and Lawrence F. Katz(2010), “Dynamics of the Gender Gap for Young Professionals in the Financial and Corporate Sectors,”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2(3), pp.228~255.

Blau, Francine D. and Lawrence M. Kahn(2017), “The Gender Wage Gap: Extent, trends, and explanation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55(3) pp.789~865.

Kleven, Henrik, Camille Landais, and Jakob Egholt Sogaard(2019), “Children and Gender Inequality: Evidence from Denmark,”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11(4), pp.181~209.

Kuziemko, Ilyana, Jessica Pan, Jenny Shen, and Ebonya Washington(2018), “The Mommy Effect: Do women anticipate the employment effects of motherhood?,” No.w24740,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OECD(2022),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2*.